

2012. 6. 4 제288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산업·경제

1. '윤리적 소비' 장려정책 시행 (파리市)

건강·복지

(토막기사) 5월을 '노인의 달'로 지정 (미국 시카고市)

(토막기사) 암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이동 상담차량' 운영 (영국 리버풀市)

방재·안전

2. 공원 내 오래된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떨어져 인명피해 속출 (뉴욕市)

(토막기사) 6월을 '침수대책 강화의 달'로 지정 (도쿄都)

도시환경

3. 산책로를 20개 주요 노선으로 체계화한 ‘녹색 길 지도’ 제작 (베를린市)
4. ‘에너지 절약 및 관리방침’ 수립 (도쿄都)
(토막기사) 모든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퇴출 추진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토막기사) 기후중립적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정책 시행 (베를린市)
(토막기사) 총량 감축 의무화 및 탄소배출량 거래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실적 및 향후 대책 발표 (도쿄都)

도시계획·주택

5. 버려진 철도부지를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및 보행도로
개조 (미국 시카고市)
-

산 업 · 경 제

1. '윤리적 소비' 장려정책 시행 (파리市)

- 파리市는 환경, 윤리, 사회 진입, 공정무역, 식량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여러 소비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市는 윤리적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지원하고 있음. 매년 파리의 윤리적 소비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인 '윤리적 소비 프랑스 플랫폼'(Plateforme française du commerce équitable), 프랑스 윤리적 소비 운동의 발기인인 '세계의 장인들'(Artisans du monde), 일드 프랑스 및 파리市와 파트너십을 맺고 활동하고 있는 '윤리적 여행 협회'(ATES), 윤리적 소비·다양성·생태주의에 근간해 새로운 음악·음반 제작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Fairplaylist', 패션 분야의 'AFER', 공정무역 자료 보관소인 'CDTM'을 지원함.
 - 市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프랑스 공정무역 유관기관이 수여하는 공정무역 지구상을 수상함. 이는 영국, 스웨덴 등 20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캠페인 'Fair Trade Towns'의 프랑스 버전으로, 생산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인.
 - 市는 또한 윤리적 구매 현장에 의거해 사회·환경적으로 윤리적인 구매를 함. 시청 구내식당에서 파는 커피, 차 등의 음료나 간식 등이 공정무역 제품이고 市 위생요원의 옷도 공정무역으로 구매한 면(綿)으로 만들어졌음.

- 윤리적 소비는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만든 제품을 소비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음. 따라서 市는 용역 발주계약서에 서비스 제공 기업이 이들을 고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음. 市는 또한 파리에 살고 있는 적극적 연대소득 수혜자를 고용하고 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경제활동 단체도 지원함.
- 市는 2009년 市, 유아원, 학교, 지자체, 파리市 사회활동센터 급식에 지역 바이오 농산물을 늘리는 계획을 수립함.
 - 2009년 전체 지출된 식품 구입비용의 약 9%가 바이오 농산품 구매비용이었음(총 식품 양의 약 12% 정도). 현재 파리 학교 급식에서 사용되는 바이오 식품은 전체의 약 10%를 차지함. 市는 식품 구매비용에 비례해 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는데, 2010년에는 79만 유로(약 11억 5200만 원)를 지원함.
- 市는 낭비를 막는 것도 소비를 잘한다는 의미로 보고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행동을 장려함.
 - 2009년 市 인구 1명당 522kg의 쓰레기 중 20%가 분리수거되었고, 89%의 쓰레기는 발전(發電)용으로 이용되거나 재활용됨. 에너지 수급·배분 전략으로 市는 건물의 에너지효율, 공공조명을 향상시키고 재활용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다양한 윤리적 소비 이해관계자들의 교류를 돕고 관련 분야 공공정책과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윤리적 소비를 위한 조직이 市의회 내에 설치됨. 市 대표자와 중소기업 및 협회 대표, 전문가, 소비자협회, 조합, 국가 경제인연합 등으로 구성됨. 향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실무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음.

- 市가 후원하는 2012년 윤리적 소비 2주간 행사가 5월 12월부터 27일 까지 개최됨. 이번 행사에서는 공정무역 아침 식사, 콘서트, 토론,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음.

(www.paris.fr/pratique/Portal.lut?page_id=8986&document_type_id=4&document_id=114833&portlet_id=21619&multileveldocument_sheet_id=20582)

(www.paris.fr/pratique/Portal.lut?page_id=8986&document_type_id=4&document_id=114833&portlet_id=21619&multileveldocument_sheet_id=20583)

(www.paris.fr/pratique/Portal.lut?page_id=8986&document_type_id=4&document_id=114833&portlet_id=21619&multileveldocument_sheet_id=20584)

(www.paris.fr/pratique/Portal.lut?page_id=8986&document_type_id=4&document_id=114833&portlet_id=21619&multileveldocument_sheet_id=20585)

(www.paris.fr/pratique/Portal.lut?page_id=8986&document_type_id=4&document_id=114833&portlet_id=21619)

건 강 · 복 지

5월을 ‘노인의 달’로 지정 (미국 시카고市)

- 미국 시카고市 가정복지국은 2012년 5월 한 달을 ‘노인의 달’로 정하고 지역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해 정신적·육체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행사를 진행함. 올해 행사 주제는 ‘Never Too Old to Play’로 노인들이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시카고市에는 60대 이상의 노인 거주자가 40만 명에 이르며 15만 명 정도가 이번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역 내 19개 센터를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음. 무료 음식배달 서비스, 환자 도우미 외에도 참여 예술 강의, 컴퓨터 강의, 댄스 강습 등이 진행됨.

- 노인의 달은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 도입했으며 1980년 카터 대통령에 의해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음.

(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fss/provdrs/senior/news/2012/may/older_americans_month.html)

암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이동 상담차량’ 운영 (영국 리버풀시)

- 영국 내 지방자치단체가 암 상담 이동차량을 운영해 암 조기 진단 및 치료 성과를 거두고 있음. 암에 걸리는 연령이 낮아지고 암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 시민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호평을 받음. 영국 중부에 위치한 리버풀시는 암 상담을 해주는 이동차량 iVan 운영을 2012년 암 예방 관련 집중 보건정책으로 선정함. 상담차량은 암 관련 일반정보를 제공하고, 암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간단한 진료와 함께 심층 진단 및 치료방법, 병원을 안내함.
- 시민이 많이 다니는 시내 중심가의 장소를 지정해 보다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주력함. 최근에는 2012년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담 차를 운영함.
- 현재 리버풀 시민의 사망 원인 중 암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는데, 전체의 1/3을 차지함. 2011년 한 해 동안 이동 상담차량을 거쳐 간 시민 중 25명이 암 진단을 받아 암 치료를 조기에 할 수 있게 됨. 이처럼 시민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시내 중심가에서 상담차량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시민이 무료로 보건의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음.
- 리버풀시가 포함된 광역자치단체인 머지사이드셔는 인근 체셔셔와 공동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동 상담차량 운영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성공사례로 평가받음. 리버풀시보다 먼저 2009년부터 이동 상담차량 서비스를 시작함.

- 차량에 유방암 등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걸어나 지나가던 시민이 쉽게 발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도시뿐 아니라 노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도 빠짐없이 방문함. 암 관련 민간 의료단체인 맥밀런(Macmillan) 암 상담버스의 운영사례에 자극을 받아 이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시작함. 맥밀런 버스는 연간 6000명을 상담하는 목표를 세우고 운영 초기 2주 만에 1815명을 상담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끄.



【이동상담차 iVan 앞에 선 전문가의 모습】

- 리버풀은 시청이 주도하고 국립의료기관의 리버풀지역 담당기관이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머지사이드주와 체셔주의 경우 국립의료기관의 지역 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동 상담차량을 운영해왔음. 현재 담당자는 20년 이상 경력의 수간호사급 보건직이 맡고 있음. 상담차량인 iVan은 매달 16개 지역을 방문하며, 방문에 앞서 지역별 보건의로 실태를 점검해 우선적으로 암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보건 서비스 취약 지역을 우선 방문토록 함.
- 이동 상담차량은 총 27피트(약 8.2미터) 길이로 외부에 노란색 표식을 하였으며 암 예방에 좋은 생활수칙 등을 그림과 문구로 알리고 있음. 내부는 1 대 1 면담이 가능한 진단·상담실, 대기 좌석, 팸플릿 등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또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휠체어 이동장치가 비치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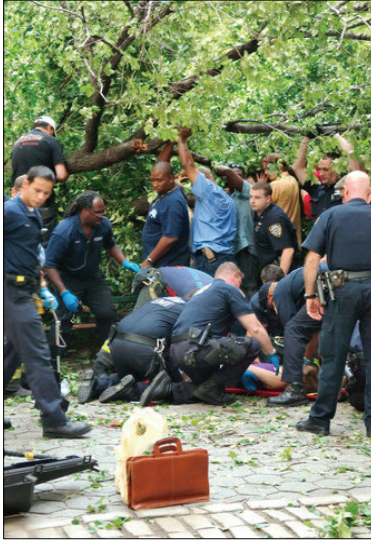
(liverpool.gov.uk/news/details.aspx?id=214476)

(www.mccn.nhs.uk/index.php/about_us_ivan)

방 재 · 안 전

2. 공원 내 오래된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떨어져 인명피해 속출 (뉴욕市)

- 뉴욕市 공원 내 오래된 나무가 썩거나 부러져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市의 책임공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市는 인명피해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市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남에 따라 100억 원 이상의 피해보상비를 지출했으며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뉴욕에는 현재 250만 그루의 나무가 있으며 7만 그루의 나무들이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음. 산림 전문가들은 수목이 울창하고 통행이 많은 25개 공원에 대해서는 市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IT기술을 활용해 나무 상태를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함.
 - 전문가들은 또한 예산을 투입해 사고 예방에 힘쓰는 것이 피해보상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함. 市는 가지치기를 위한 예산을 470만 달러(약 55억 5000만 원)에서 145만 달러(약 17억 원)로 대폭 삭감한 바 있음. 뉴욕市만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시카고, 산호세 등 많은 도시가 수목 관리를 위한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이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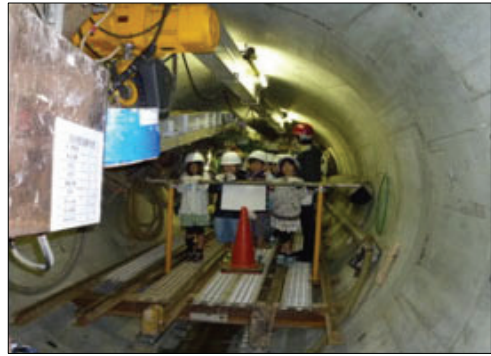
【2007년 공원 내 나뭇가지가 부러져 인명사고가 발생해 거액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사건(왼쪽), 뉴욕 동물원 근처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진 모습(오른쪽)】

(www.nytimes.com/2012/05/14/nyregion/in-new-york-neglected-trees-pr-ove-deadly.html?pagewanted=3&r=1)

6월을 ‘침수대책 강화의 달’로 지정 (도쿄都)

- 도쿄都 하수도국에서는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을 ‘침수대책 강화의 달’로 지정하고 장마철 호우로 인한 침수 방지를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대책 및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임.
- 침수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都 직원이 호별 방문을 실시해 침수 방지에 대한 전단을 배포하고, 장마철에 대비해 하수도를 청소하고 맨홀 및 빗물 저류시설 등에 대해 총점검을 실시함.
- 이와 함께, 도민들이 하수도의 역할과 침수대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펌프시설 및 건설공사 현장 7개소를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함. 현장에서는 패널 전시 및 팸플릿 배포를 통한 침수대책사업 소개, 반지하 및 지하실 침수 체험 등을 실시함. 또한, 18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도 각 자치구가 준비한 견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임.



【2011년도의 견학 모습】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5/20m5h700.htm)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5/DATA/20m5h700.pdf)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5/20m5h701.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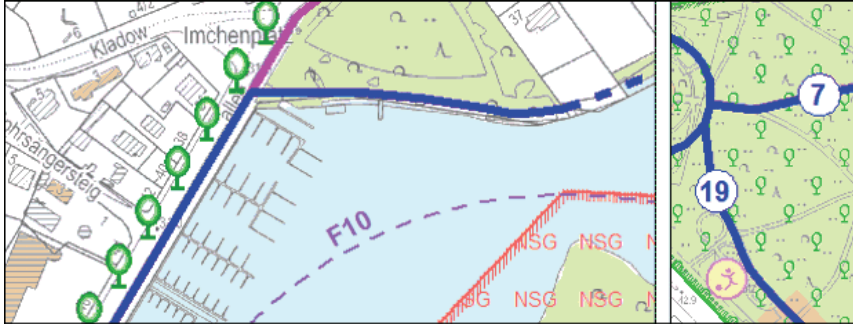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5/DATA/20m5h701.pdf)

도 시 환 경

3. 산책로를 20개 주요 노선으로 체계화한 ‘녹색 길 지도’ 제작 (베를린市)

- 베를린市 도시발전·환경국은 도시 산책로 조성사업과 병행해 2004년부터 베를린 환경·자연보호협회, 베를린 보행자협회와 함께 베를린의 산책로 지도를 작성해옴. 市는 이번에 도시 전체의 산책로를 20개의 주요 노선으로 체계화한 지도를 완성하고 디지털화해 발표함.

- 산책로는 자동차도로의 공해나 위험에서 벗어난 길로서 주민이 천천히 생각하며 거닐기, 건강을 위한 걷기, 유모차 끌고 산책하기, 걱정거리 없애기를 할 수 있는 녹색 길임. 계속 이어지는 산책로는 걸어서 다른 동네 또는 휴양지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며, 긴 도보 여행도 가능하게 해줌. 市가 이번에 체계화한 주요 녹색 산책로의 총 길이는 550km임.
 - 산책로 지도는 주민의 산책과 소풍을 위한 가이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 지도는 수 많은 산책로를 20개의 노선으로 분류하고 체계화함. 각 노선은 1에서 20까지의 번호로 이름이 지정됨. 이는 지도 상에 파란색의 선과 번호로 표시됨.
 - 또한 지도에는 산책뿐 아니라 휴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변 공원, 놀이터, 묘지, 숲 학교, 수영이 가능한 하천, 기념물, 건축 문화재, 정원 문화재, 유적 발굴지, 희귀 동식물 보호구역, 경관보호 구역 등을 표시함. 이 밖에도 역사가 오래된 가로수 길 또는 오래된 마을 등 길이 지나는 장소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첨부함. 주요 산책로로 분류되었으나 아직 길이 나지 않은 곳이나 길이 끊어져 공사 중인 곳에는 우회로가 표시됨.
- 이번 녹색 길 지도 제작에는 100여 명의 산책가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함. 이들은 현장조사를 통해 산책로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를 내용적으로 보강하고, 각 산책로의 장점과 문제점 등을 충분히 반영시킴으로써 산책로 지도가 단순한 도로망 표기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



- 현재 각 산책로에는 파란 선에 번호가 기입된 통일된 형태의 이정표가 길 안내를 함. 이 지도는 서점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市 도시발전·환경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음. 市는 산책길에 생긴 변화나 지도와 차이 나는 부분, 불편사항 등을 시민이 언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개설함. 신고된 내용은 매년 5월 수정판 지도를 제작할 때 반영함.



【산책로 이정표】





(www.stadtentwicklung.berlin.de/umwelt/berlin_move/de/hauptwege/)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205/nachricht4670.html)

4. ‘에너지 절약 및 관리방침’ 수립 (도쿄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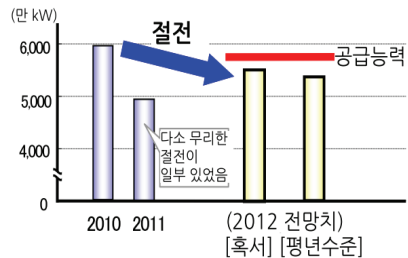
- 도쿄都는 원전 가동 중단으로 여름철 전력수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올 여름 전력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명한 에너지 절약’ 대책과 더불어 ‘스마트 에너지 도시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쿄都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관리 추진방침’을 2012년 5월 14일 수립함.

(단위 : 만 kW)

공급능력	5,771	
최대전력수요	(더 더울경우) 5,520	(평년수준) 5,360
	※ 절전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최대전력수요는 절전효과가 반영되어 있는 수치이므로, 작년의 절전조치를 기반으로 현명한 절전대책이 중요

여름철 최대전력 수요(과거 실적과 2012년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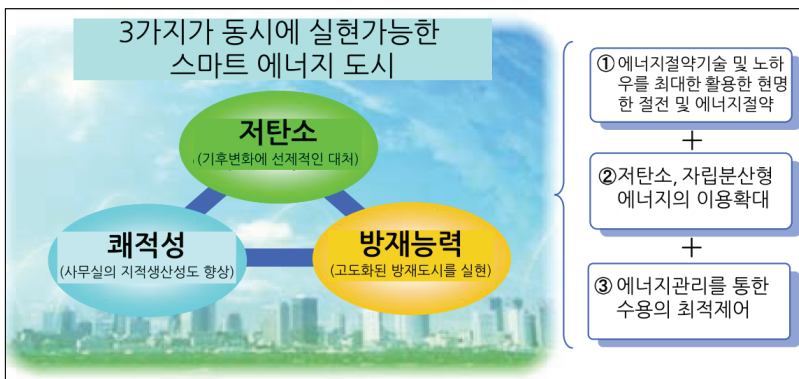
【도쿄都 최대전력수요 전망】

- 이번에 수립된 방침에서는 앞으로 에너지 절약 대책의 기본방향이 될 ‘현명한 절전’에 대한 3대 기본원칙과 사업체 및 가정을 대상으로 각각 7개의 세부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① 불필요한 소비를 없애고 경제적으로도 실익이 있는 에너지 절약 대책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의 관점에서 철저히 정착시켜 나가고(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 ② 일상적인 경우와 무더위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일어날 경우로 나누어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하며(Peak Cut 대책 수립), ③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고, 쾌적한 사무실 및 주거환경 유지 확보와 양립할 수 있는 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절전효과가 작고 불편이 큰 일부 대책은 실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경제활동 및 도시 활력·쾌적성 저하를 유발하는 절전대책은 추진하지 않음)을 3대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체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각각 7개 조항의 원칙은 다음과 같음.

【사업체 및 가정부문 에너지절약 기본원칙】

사업체에서의 7대 원칙	가정에서의 7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의 밝기를 500룩스(Lux) 이하로 유지하고 낭비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등 조명 조도에 관한 재검토 정착화 - 실내온도 28℃를 넘지 않도록 할 것 - 사무기기의 절전모드 설정 - 절전효과를 가시화해 이에 대한 효과를 모두 공유 - 사무실 등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기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절약 - 엘리베이터 정지 등 효과가 작고 불편이 큰 대책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 - 전력수급 불균형이 예고되었을 때 추가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에는 냉장고의 내부온도 설정을 ‘中’으로 유지 - TV의 절전모드 설정 - 백열전구는 LED나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 - 실내온도 28℃를 넘지 않도록 에어컨, 선풍기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 - 무더운 날에는 에어컨 사용을 과도하게 억제하지 않음 - 가전제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 소비전력이 큰 가전제품은 평일 14시 전후로 사용 자제. 특히 전력수급 불균형이 예고되었을 때는 사용을 자제함

- 본 방침에서는 ‘스마트 에너지 도시’ 구현을 위해 저탄소, 쾌적성, 방재능력의 3가지 항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대책도 제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① 사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저탄소 및 에너지 절약 대책 촉진, ② 신축건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성능 향상, ③ 주택에 대한 에너지 절약 대책 촉진, ④ 재생에너지 등을 저탄소 전원(電源) 및 자립분산형 전원(電源)으로 이용 확대, ⑤ 에너지 공급 양측에서 최적 제어를 실시하는 도시 만들기 등 크게 5가지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제시하고 있음.



【‘스마트 에너지 도시’ 구현을 위한 세부방안】

주요 방향	세부 방안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대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있어 수요자가 저탄소 전력 및 열의 선택을 평가하는 방안 도입 - 중소기업이 스스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저탄소 배출형의 기존 중소규모 건축물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추진
신축건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성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에너지절약 성능을 한층 더 강화 - 재생에너지 이용을 보다 확대 - 건물의 환경성능에 관한 표시내용 강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대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의 에너지절약 성능을 보다 향상시킴 - 주택의 태양열 이용 확대 - 에너지절약 진단 개념을 활용해 주택에서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주요 방향	세부 방안
재생에너지 등을 저탄소 전원 및 자립분산형 전원으로 이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태양열발전의 새로운 보급개념 검토 - 탄소배출권 제도를 활용한 고효율의 열병합발전 이용 추진 - 고효율의 열병합발전 도입에 대한 지원
에너지 수급 양측에서 최적 제어를 실시하는 도시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개발 시 에너지 매니지먼트 추진 - 업무지구의 지역 에너지 매니지먼트 추진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2/05/70m5e100.htm)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2/05/DATA/70m5e100.pdf)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2/05/DATA/70m5e100.pdf)

모든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퇴출 추진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 미국 LA에서는 시내 모든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임. 2012년 5월 23일 LA 시의회는 플라스틱백(비닐봉지) 규제안을 13 대 10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의결함.
 - 이는 비닐봉지 오남용에 대한 규제라는 큰 틀에 합의한 것으로 자세한 세부규칙과 시행일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빠르면 2012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규제안 통과로 LA는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미국 내 최대 도시가 될 전망이며, 관내 7500여 개 슈퍼마켓이 대상이 됨. 규제안이 선포되면 최대 1년간(대형 슈퍼 6개월, 소형 슈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발 시에는 벌과금이 부과될 방침임.
 - 이번 규제안 통과는 그동안 공격적인 로비활동을 벌인 환경보호단체의 성과라고 평가받음. 매년 23억 개의 비닐봉지가 LA에서 소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보호단체들은 비닐봉지를 퇴출시켜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는 목표표로 이 법안 제정에 힘써 왔음.

(www.canplastics.com/news/l-a-set-to-enact-plastic-bag-ban/1001413128/)

기후중립적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정책 시행 (베를린市)

- 베를린市는 2012년 초 2050년까지 베를린을 기후중립적 도시(klimaneutrale Stadt)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건물을 기후중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베를린 기후보호정보센터는 2012년 5월 21일 기후보호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기후보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풀어주는 기후보호 전문가 포럼사이트(www.berlin-klimaschutz.de)를 개설함. 이 사이트에서는 첫 번째 주제로 기후중립적 도시 조성을 위한 에너지효율적인 재건축 문제를 다룸.
 - 또한 市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에너지효율을 주제로 한 대규모 에너지 행사인 ‘에너지데이’(Berliner Energietage)를 개최함. 이번 행사에는 독일과 독일어권 나라에서 총 7800명이 참가함. 주요 논제는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적인 재건축, 기존 건물에서의 에너지 극대화, 요식업 및 숙박업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원자력발전소 없는 독일, 열병합발전의 새로운 붐, 재생에너지로서의 지열 등임.
- 市 도시발전·환경국은 2012년 1월 23일 베를린 에너지에이전시(Berliner Energieagentur, 베를린市의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기관이자 재생에너지 관련 서비스 회사)와 함께 기후중립적 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건물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장기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제시함.
 - 건물을 기후중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市는 먼저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 대책에 착수함. 이에 따라 공공건물에서의 열 및 전기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경영체계가 도입됨. 이미 1300여 개소의 공공건물이 에너지효율적으로 개조되었고, 앞으로도 확대될 예정임. 재생에너지 투입도 확대됨. 친환경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공공건물 지붕에 더 많은 태양열 집열판이 설치되고, 열병합발전기 설치도 확대됨.

(www.berliner-energietage.de/programm/programm.html)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205/nachricht4677.html)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205/nachricht4674.html)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201/nachricht4567.html)

총량 감축 의무화 및 탄소배출량 거래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실적 및 향후 대책 발표 (도쿄都)

- 일본 도쿄都에서는 2010년부터 환경확보조례에 근거해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화와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작되었음. 대상 사업장은 매년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실적 및 총량 감축 의무화 달성을 위한 감축계획을 기재한 계획서를 제출·공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都는 2012년 5월 21일 2011년도에 제출한 계획과 2010년도 실적을 집계해 발표함.
- 대규모 사업장의 2010년 총 배출량은 기준 배출량 대비 약 13%가 감소하였으며, 이 중 감축 의무량 이상을 감축한 사업체는 전체 사업장의 64%에 달함. 2010년도까지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총 1159사업체에서 5764개의 대책이 시행된 결과 탄소배출량이 38만 톤 감소함.
- 2011년 하절기(동일본 대지진 이후 절전대책)에는 2010년도 하절기에 비해 사무실 조명조도를 낮추거나 실내온도를 28℃ 유지하는 등의 대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으며, 임대건물에서의 배출량 감소를 위한 각종 대책도 증가함.
- 각 사업장이 제출한 향후 감축계획에 따르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간 추가로 약 3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예정임. 이와 같은 감축계획이 모두 시행될 경우 감축 의무비율 이상 감축한 사업장은 64%에서 7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원전사고로 인한 절전대책의 영향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10년도까지 실시된 감축대책 중 상위 5가지 유형 및 사례】

순위	감축대책 유형	대책 수	구체적 사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조 관리 공조설비의 효율적 관리 환기설비 운전관리 	1,6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조기 교체 온·습도 적정관리 공조시간 재검토 주차장 팬의 운전 스케줄 재검토 외부 공기 도입량 적정화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명설비 운용관리 수변전(受變電) 설비 관리 사무용기기 등 관리 	1,4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D, 고휘도유도등 등으로 교체 센서 등 제어기능 도입 점심시간 등 사용하지 않는 시간 소등 고효율형 변압기로 교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소설비 관리 냉동기의 효율적 관리 보조기기 운전관리 등 	8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동기 교체 냉온수 출구 온도관리 냉온수 펌프, 냉각수 펌프 등의 인버터화 열기밸브 등의 단열강화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탕설비 관리 급배수 설비 관리 냉동냉장설비 및 주방설비 관리 	3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면시설의 동절기 이외 급탕 중지 절수형 변기 등으로 교체 화장실에서의 히터 가동 중지 자동판매기를 에너지 절약기기로 교체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체제 정비 주요 설비 등 안전관리 계측 및 기록 관리 	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체제 정비 임차인에게 에너지 사용량 정보 제공 인재 육성 및 에너지절약 교육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2/05/70m51100.htm)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2/05/DATA/70m51100.pdf)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2/05/DATA/70m51101.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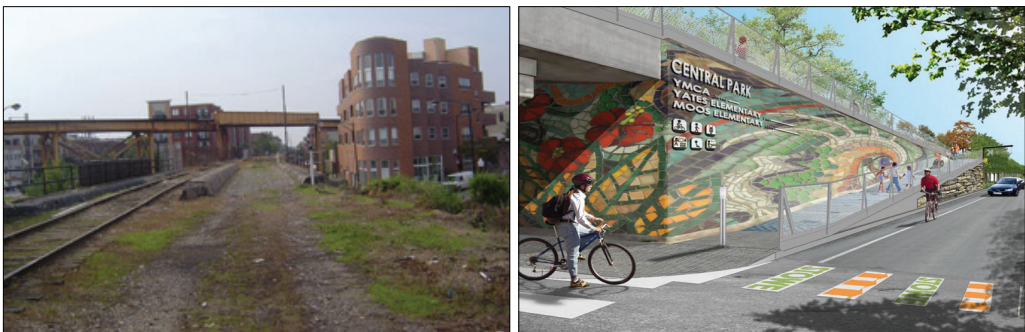
도시계획 · 주택

5. 버려진 철도부지를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로 개조 (미국 시카고市)

- 미국 시카고市는 1910년에 고가철도로 건설된 이후 1990년 후반에 완전히 그 기능을 다했던 4.3km에 이르는 버려진 고가철도를 인근 공원을 연결하

는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로 탈바꿈하고 새로운 공원과 함께 개소할 예정임.

- 새로운 개념의 공원이 될 Bloomingdale 공원은 2014년 말에 개소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계와 건설 과정에 반영할 예정임.
 - Bloomingdale 고가철도가 가지고 있던 철로 고유의 독특함을 유지하기 위해 고가철도 독을 재활용하는 디자인을 모색함.
 - Bloomingdale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가 市가 추가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조성하게 될 공원과 주변에 있는 기존 공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함.
 - 여러 지점에 전망대와 광장을 설치함과 동시에 인근 주민의 사생활 및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함.
 - 주변 지역의 지하철·버스노선, 공원, 사회 인프라와 적절히 융합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및 오토바이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하고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지향함.
- 예상되는 공사비는 10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市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여러 민간기업의 기부, 市 재정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예정임.



【현재 버려진 철로인 Bloomingdale 노선(왼쪽), 여러 공원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의 역할을 수행할 Bloomingdale 조감도(오른쪽)】

- 모든 계획은 청문회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면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 이러한 형태의 공원은 2009년 市가 버려진 철로 2km를 보행 전용로로 개조해 일반인에게 제공한 전례가 있으나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함께 건설하는 예는 이번이 처음임.

(www.bloomingtondaletrail.org/)

(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cdot/provdrs/future_projects_andconcepts/news/2012/may/bloomington_dale_trailandparkframeworkplancompleted.html)

(<http://archpaper.com/news/articles.asp?id=6039>)